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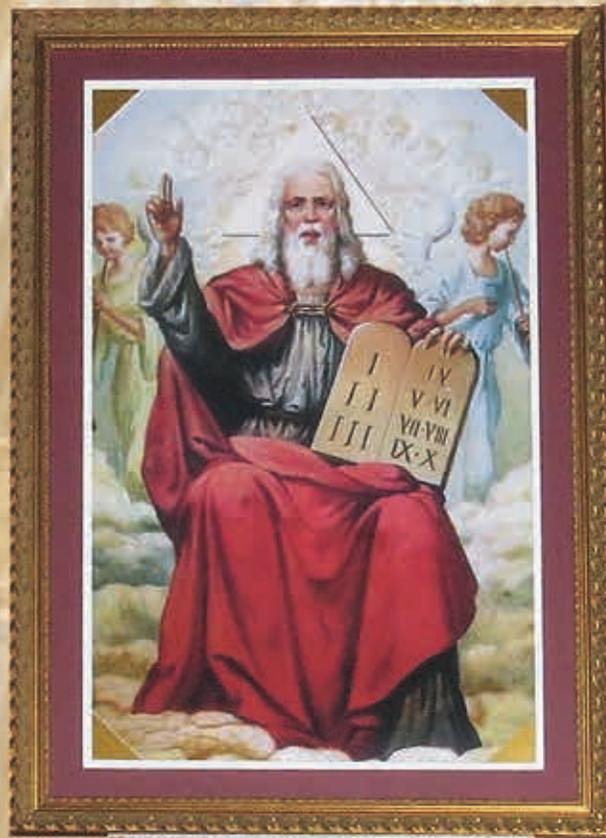


# 거룩한 사랑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공식 간행물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지향하는 선교회와 성지

“어떤 진리도 거룩한 사랑을 반대하지 않는다.”



## 아버지 하느님의 축일

-2017년 8월 6일-



거룩한 사랑 잡지는 년 3 회에 걸쳐 거룩한 사랑과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하는 영적 여정을 세상에 더 잘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출판됩니다. 이번 발행은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님의 축일 (5월 5일), 하나 되신 성심 (6월)과 아버지 하느님 (8월)께 경의를 표하는 두 행사, 그리고 하나 되신 성심의 자녀회의 연차 총회, 등을 포함합니다.

### 거룩한 사랑

2017년 5월 ■ 6월 ■ 7월 ■ 8월

제4권 제2호

그리스도교의 일치를 지향하는 선교회와 성지 “어떤 진리도 거룩한 사랑을 반대하지 않는다.”	2쪽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 축일	3쪽
6월 행사 - 하나 되신 성심의 축일	4쪽
거룩한 사랑이 파티마를 축하하다	6쪽
하나 되신 성심의 자녀회 제6회 연차 총회	7쪽
아버지 하느님과 그분의 신성한 뜻의 축일, 거룩한 변모 축일	8쪽
영적 여정 - 제21편: 하나 된 사랑	10쪽
복되신 어머니의 실제 생신 축일	12쪽

### HOLY LOVE MINISTRIES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37137 Butternut Ridge Rd.

North Ridgeville, Ohio 44039 USA

성 토마스 아퀴나스

중앙 시설: 440-327-8006

선교회 팩스: 440-327-8017

메시지 신청: 440-327-5822

기도 신청: 440-327-8039

기도 신청, 이-메일: prayers@hollylove.org

선교회 연락: mamshl@hollylove.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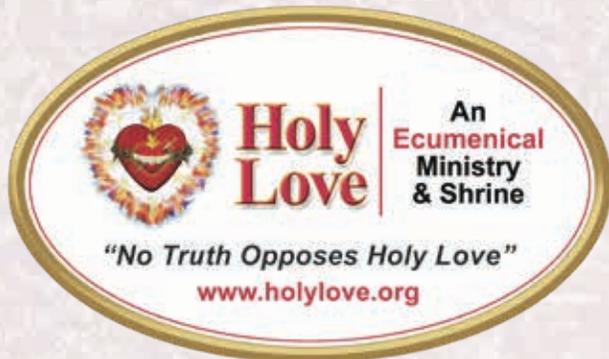
자원 봉사자: volunteers@hollylove.org

체험담 제출: testimonies@hollylove.org

웹사이트: www.hollylove.org;

www.hollylovekorean.com

한국어 옮긴 이: 거룩한 사랑의 종 한인 선교회  
Korean Missionary Servants of  
Holy Love (KMSHL)



###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지향하는 선교회와 성지

“어떤 진리도 거룩한 사랑을 반대하지 않는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에큐메니컬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을 지향)입니다. 이 에큐메니컬 선교회와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천국이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을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으로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부르십니다.

거룩한 사랑은 사랑의 위대한 두 계명, 곧 하느님을 만유 위에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은 아버지 하느님의 뜻, 복음 메시지의 실천, 십계명의 구현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은 목격자 모린 스위니 카일 (Maureen Sweeney-Kyle)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시현(示現 vision), 발현, 메시지들은 1985년에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 복되신 어머니, 많은 성인 성녀들께서 거의 매일 모린 자매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들은 사랑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지향하는 에큐메니컬 (공동 기도) 운동으로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의 메시지 인용구가 이 선교회의 목적과 중심점을 분명하게 합니다.

“이 선교사업의 영향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하도록 즉,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마음이 회개하도록 하고, 수많은 초자연적 은총이 충만하게 이곳에서 입증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이곳의 선교사업은 모든 세대와 나라와 이데올로기(ideologies 이념, 관념)의 회개를 가져오는 것이다.” (고통의 성모님, 2011년 9월 15일/자정 기도모임)

“이 선교회의 (기도의) 성지와 메시지들은 모든 사람들이 영감과 은총, 평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원천으로 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그렇게 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애정 어린 초대에 따르십시오.”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 2012년 1월 20일)

“이 선교사업의 전체적이고 완전한 동기는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거룩한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없애고, 그리하여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이 모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랑은 다양성에 빠진 마음을 다스릴 수는 없다. 온갖 종류의 관심을 거룩한 사랑에 우선하여 두는 마음은 진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예수님, 2012년 1월 17일) ■

우리는 모든 백성과 모든 종교를 환영합니다. 기도는 보편적 언어입니다.

여기에 순례오는 모두를 기도와 천국이 이 성지에서 제공하는 평화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초대합니다.



##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 축일 - 2017년 5월 5일 -

**성모님께서 그분 주위에 찬란한 빛과 그 빛 안에 많은 천사들과 함께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로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나는 내 성심 곧, 죄인들의 피신처, 힘·용기의 요새, 그리고 평화의 성역·안식처를 너희에게 제공한다. 내 성심의 문은 언제나 모두에게 열려 있다. 이 겸손한 피신처는 다만 진리가 머물러 있는 예수님의 장엄한 성심으로 가는 디딤돌에 불과하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어떤 처지에서도 절대로 홀로가 아니라 언제나 내 성심인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에 의지한다. 내 성심은 언제나 내 아드님의 성심과 일치한다. 따라서 너희가 내 성심에 맡기는 모든 청원은 내 아드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심으로 전해진다. 우리가 모든 마음이 일치되길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성심은 일치한다.”

“거룩한 사랑은 지금은 증오가 마음들을 압도하려고 하는 시대에 뚜렷해지고 있다. 이 나라(미국)에서는 이제 보복의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교 이상을 공공연히 선언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것처럼, 거룩한 사랑이 확실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거룩한 사랑에 관한 승리다.”

“내 성심의 피신처는 혼란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한다. 거룩한 사랑은 혼란을 없애고 진리를 보호한다. 거룩한 사랑은 진리다.”

“너희의 개인의 거룩함이나 보호나 힘을 위해 더 복잡한 계획을 계속 더 찾지 마라. 너희는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받는다.” ■



### 저녁 7시 묵주기도 모임 - 성모님께 관을 씌워드리는 5월 행사

**복되신 어머니께서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님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축제일에 나와 함께 기도해 주어서 고맙다.”

“나는 너희에게 두 가지만 청하기 위해 왔다. 그것은 너희가 언제나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 그리고 매 현순간에 너희 이웃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것이 거룩한 사랑이다.”

“오늘밤 내 거룩한 사랑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



# 하나 되신 성심의 축일

오후 3시 기도모임

하나 되신 성심의 별판 성지에서

(이 메시지는 며칠 동안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복되신 어머니께서 그분들의  
성심을 드러내고 오시고 그 분들 앞에 하나  
되신 성심의 성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모든 찬미.”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느님의 지시에 따라 오늘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 왔다.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청원들을  
나의 예수 성심에 품고 있다. 희망을  
포기하지 마라. 너희의 기도 활동에서  
용감해져라. 세상의 회개를 위해 매일  
기도하여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아버지의 신성한 뜻은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너희가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을 거쳐  
여행하고 있을 때 쉽게 밝혀진다.”

“아버지께서는 하나 된 성심의  
계시의 중요성을 되풀이 하기 위해 오늘 나를 보내신다.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을 통하는 여정은 나의 아버지의 신성한  
뜻과의 일치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 잠김에까지 이르는 여행이다.  
다른 길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다. 이 여정은 삶의 방식이고  
개인의 거룩함에 위탁되어 있는 상태다.”



연간 평신도 형제회 모임  
(6월 24일)



고통의 어머니 성지와 눈물의 호수



행렬



하나 되신 성심의 별판 성지



행렬을 인도하는  
평신도 형제회 회원들



하나 되신 성심의 성지 정상에  
평신도 형제회 회원들



하나 되신 성심의 성지

# 2017년 6월 25일



“이 여정은 거룩한 사랑의 받아들임을 요한다. 거룩한 사랑은 계명들의 구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랑은 계명들을 받아들임을 필요로 한다. 하나 된 성심의 계시는 모든 영혼을 위한 하느님의 지정하시는 뜻이다. 거룩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은 아무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오늘 나는 너희 각자가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로 들어가기 위해 거룩한 사랑을 따르기를 요청한다.”

“우리의 성심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구원을 위해 갖춰야 하는 것에 대한 무관심을 슬퍼한다. 이것은 선과 악에 대한 그들의 무관심에서 반영된다.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이 거룩함을 향한 너희의 인간적인 노력을 통치하게 하기를 결심하여야.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을 통과하는 영적 여행을 하는 것에, 그리하여 너희의 노력을 하느님의 뜻과 일치시키에 전념하여야.”

“너희의 가장 작은 노력이 우리의 가장 큰 은총으로 대조될 것이다.”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을 통과하는 여정을 따르는 것은 하느님의 신성한 뜻을 따르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



예수 성심 성상



오후 3시 기도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 성상



묵주기도 선도자들



묵주기도 부속 건물



성지에서 오후 3시 기도모임



자정 기도모임





## 거룩한 사랑이 파티마를 축하하다

“거룩한 사랑의 성지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오늘날의 파티마다.”  
 복되신 어머니 - 2011년 10월 13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파티마는 이 선교사업 안에 건재(健在)하여 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선교회는 파티마의 연속이다. 가장 큰 차이는 사람들 가운데에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들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같은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서 아마도 더 심도가 깊을뿐 메시지는 같다. 나는 파티마에서 내 티없는 성심이 알려지기를 요청했다. 여기에서는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이 알려지기를 요청하고 있다.”

복되신 어머니 - 2012년 10월 13일

“여기에서의 나의 노력은 파티마에서 있었던 것과 같다. 즉, 영혼들을 구하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 이것이 천국으로부터의 나의 평화 계획이다.” 성모님께서 태아묵주를 내미십니다.

파티마의 성모님 - 2016년 5월 13일

[www.RosaryOfTheUnborn.com](http://www.RosaryOfTheUnborn.com)



손가락 묵주

태아를 위한 짧은 묵주



확대하여 큰 묵주알



태아를 위한 큰 묵주



To order, call 440-327-4532 or order online.  
 Archangel Gabriel Enterprises Inc.

주문: 전화 440-327-4532 혹은 온라인 주문  
 가격: 큰 묵주 - \$29.95, 태아를 위한 짧은 묵주 - \$14.95



# 하나 되신 성심의 자녀회 제6회 연차 총회 - 2017년 8월 5일 -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8월 5일 토요일에 하나 되신 성심의 자녀회(CUHA)의 기도모임 단체 지도자들의 제6회 연차 회의의 기꺼이 주최하였습니다.** 이 하루 종일 회의에는 마라나타 샘과 성지의 성 토마스 아퀴나스 교육 센터내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는 69명의 CUHA 기도모임 단체 지도자들이 미국, 멕시코, 아일랜드로부터 참석하였습니다.



하나 되신 성심의 자녀회는 세상의 마음을 하나 되신 성심께 봉헌하기 위해 매일 기도하도록 2012년 3월 4일에 성모님께서 만들어내신 세계적인 평신도 협회입니다.

자녀회는 834개의 등록된 기도모임 그룹으로 45개의 나라들에서 2,539명 이상의 회원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금년의 회의의 주제는 **“그것을 배워라 - 그것에 따라 살아라 - 그것을 전파하여라!”** 였습니다. 강연자들은 아래와 같은 제목을 다루면서 그 주제의 여러가지 국면을 탐구하였습니다. 하나 되신 성심의 성심회의 역할

- 첫째 심방 - 하나 되신 성심의 가장 중요한 심방
- 영적 여정의 장애물과 혼란
- 신성한 사랑으로의 여정
- 영원하신 성부의 성심 - “최종 목표.”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노력과 희생에 대한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에서 제공하는 ‘감사’의 선물로서, 각 기도모임 그룹 지도자는 새로운 자녀회 회원 장식핀 (회원들은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로부터 \$8.00에 주문할수 있음), 1995년 8월부터 2017년 7월에 걸친 아버지 하느님께서 주신 대증을 위한 메시지들 전체를 포함하는 특별 편집물과 액자에 끼우기에 적합한 이목을 끄는 아버지 하느님의 인쇄 성화를 받았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하나 되신 성심의 채플에서 저녁 7시 기도모임 전에 우리의 언제나 인기 있는 의례적 행렬과 종결짓는 장미 의식(儀式)이 열렸습니다.** 기도모임 단체 지도자들이 채플 입구에서 줄을 섰으며 그들은 복되신 어머니를 위한 줄기가 긴 희 장미를 받았습니다.

곧이어 그들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찬송가, 나는 너희 어머니,를 부르며 중앙 통로를 줄지어 걸어 내렸으며 각 지도자는 그들의 장미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의 생신에 바치는 자애로운 찬사로서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 성상의 발 밑에 공손하게 놓았습니다.



**8월 6일 일요일에 하나 되신 성심의 자녀회(CUHA)의 기도모임 단체 지도자들은 오후 3시 기도모임에 앞서 하나 되신 성심의 별판 성지로 이끄는 행렬의 선두에 섰습니다.** 그들은 자녀회 (CUHA)의 기장 뒤에 두 명씩 짝을 지어 행진하면서 하나 되신 성심의 성지의 언덕에 나아갔으며 전체 행렬이 끝났을 때 까지 그 언덕 꼭대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기도회와 약속하신 아버지 하느님의 발현을 위해 다른 순례객들에 함께 참가하였습니다.

고향으로 귀가한 하나 되신 성심의



자녀회(CUHA)의 기도모임 단체 지도자들은 그들이 주말에 경험했고 배웠던 모든 것을 그들의 기도모임 단체와 나누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전에 응합니다 -

**그것을 배워라 - 그것에 따라 살아라 - 그것을 전파하여라!**

# 아버지 하느님과 그분의 신성한 뜻의 축



고통의 어머니 성지



정자



흰색의 마돈나 경당



행렬



마라나타 샘



## 하나 되신 성심의 별판 성지에서 오후 3시 기도모임

(이 메시지는 며칠 동안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주어졌습니다.)

저는 (모린) 또다시 제가 아버지 하느님의 성심으로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느님, 모든 시대의 아버지다. 나는 나의 전능의 표시로 또다시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한다. 영원토록 나는 누가 이 성지에 올지, 누가 믿을지 또는 믿지 않을지를 알고 있다. 너희 마음속에 내가 모르는 청원은 없다. 나는 너희의 싸움·투쟁과 기쁨과 실망을 본다. 효성스러운 신심으로 내게 의지하고 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여라. 나는 너희 믿음을 육성하기 위해 온다.”

“오늘날 마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탄의 혼란이다. 선과 악 사이의 선택은 더 이상 분명하지 않다. 이것은 진리의 타협과 권한 남용 때문이다. 죄들이 지상의 인간을 만족시키기 위해 합법화 되고 있다. 나를 기쁘게 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나의 계명들은 무시된다.”

“이 세상에 핵무기의 무장에서 선과 악이 교착 상태에 도달하고 있다. 선은 불필요하게 교만한 무력 과시의 결과를 알고 있다. 악은 또다시 진리의 타협과 권한 남용으로 쉽게 영향을 받는다.

그 안에 위험이 있다. 사악한 마음들이 사리를 잘 알도록 기도하여라.”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적들이 매우 많다. 이것이 세계 정부를 형성하기 위한 사탄의 발판이 될 것이다. 그자는 내내 통제를 음모하면서 평화와 일치를 제안할 것이다. 속지 마라! 이것이 이 나라(미국)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성역·안식처가 되는 것 즉, 그리스도교 신앙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곳이 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한 이유다.”

“내가 너희에게 오는 것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악에 대비하는 너희의 방어나 해결은 아니다. 너희는 마음속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반응해야 한다. 기도와 희생으로 무장하여라. 이렇게 하여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너희에게 더 분명해질 것이며, 너희는 나의 신성한 뜻에 따라 반응할 수 있다.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은 언제나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통한 너희의 덕성의 향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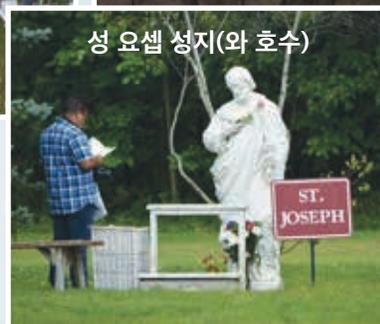
“나는 너희에게 나의 신성한 뜻의 왕국을 묘사하고 싶다. 이것은 지상의 어떤 왕국과도 다르다. 이 왕국에는 성곽이 없고 경계를 정한 영토가 없다. 이것은 오직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왕국이다. 이 신비적인

자정 기도모임



하나 되신 성심

# 일, 거룩한 변모 축일 - 2017년 8월 6일



왕국에서 마음들은 내 계명들에 따라 즉, 신성하고 거룩한 사랑에 따라 사는 것을 받아들인다. 이것이 내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도록 각 영혼을 창조하는 이유다. 이 사랑에 대한 증거는 내 계명들에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이다.”

“나는 이 세상에 나의 신성한 뜻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왔다. 이 왕국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나의 신성한 뜻 사이의 합체다. 이 둘은 거룩한 사랑 안에서, 거룩한 사랑을 통해 일치한다. 영원한 계획은 이 합체를 통해 세상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겸손한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그들 자신이 믿는 것에 자부심을 갖는 신성한 체하는 단체들보다 또는 나에게 말만 앞세우지만 그들의 마음을 주지는 않는 사람들보다 나에게 더 의미가 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믿어라.”

“나는 오늘 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나의 성심을 여기에 쏟아 놓았다. 어떤 사람들은 쉽사리 믿고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내리는 나의 메시지들을 듣는 것은 그것을 믿고 적절히 행동할 책임을 수반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나의 성심에 상처를 입힌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믿지 않음은 진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그들의 병이 완치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회복되지 않지만 모두 그들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은총을 받을 것이다. 이때까지 매우 어렵고 부담이 무거운 특정 상황들은 평화롭게 해결될 것이다.”

“나는 오늘 이 성지에 와서 나의 말들을 듣고 그것들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 모두에게 감사한다.”

“오늘 나는 선악에 대한 분별의 은사를 수반하는 하느님 아버지로서의 나의 은총을 너희에게 내린다. 따라서 그것은 영혼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극복할 필요가 있는 것을 분별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

## 성경 구절 독서: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2:13)

율법을 듣는 이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가 아니라, 율법을 실천하는 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 성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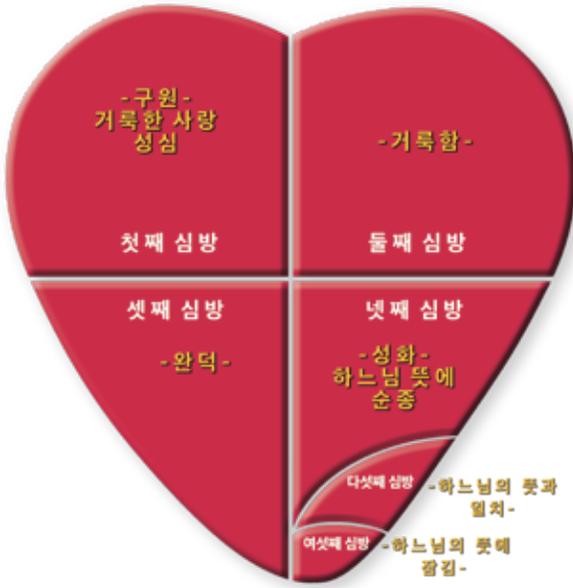


## 오후 3시 기도모임



# 제21편 - 영적 여정

## 하나 된 사랑: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에서 완덕 (제1부)



하느님께서 **하나 된 사랑**이라고 부르시는 은총의 개념과 체험이 처음으로 **하나 된 성심의 여섯째 심방 (제20편 참조)**의 영성에 대한 토론의 결론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이 여섯째 심방은 또한 **영원하신 성부의 성심**입니다. **하나 된 사랑**에 대한 것 즉, 가장 높고 가장 순수한 종류의 사랑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이 제공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 된 성심 안에 존재하는 일치에 의해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2007년 5월 5일,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님 축일 제10주**년에 주신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을 위한 월 메시지의 맨 끝에서 그분께서 하나 된 사랑이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과 관련이 있다는 일견을 밝히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희가 알다시피 시간이 빨리 지나 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거룩한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서 성령의 힘에 의하여 증가되도록 기도하기를 긴급히 요청한다. 모든 덕을 격려하고 너희를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일치로 더 깊이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용어 ‘**하나 된 사랑**’은 **2003년 7월 31일**에 주신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에서 처음으로 표면화했습니다. 그 메시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먼저 마음속에 들어올 때까지 세상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각 마음이 회개를 체험함에 따라 나의 신성한 성심으로 통과하는 다음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개 후에 영혼이 나와 언제나 변함없는 관계를 원한다면, 그는 그의 가장 작은 결함까지도 그에게 드러낼 양심의 조명을 경험할 것이다. 그가 사랑 안에서 그의 결함과 결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는 나의 아버지의 신성한 뜻과 일치하는 **하나 된 사랑**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것이다. 이 **하나 된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각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이다.”

“내가 사랑 안에서 각 마음과 일치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내가 얼마나 이 승리를 갈망하는지!”

그 다음 날 **2003년 8월 1일**에 주신 다른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 된 사랑**의 은총에 대해 더 한층 설명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이 **하나 된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길이와 폭과 깊이가 사람이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크다. 그럼에도 이승에서 획득할 수 있으나 너무 소수의 사람이 즐긴다. 그것은 매 순간을 변형시키는 아주 엄청난 기준의 사랑이다. 이 사랑은

영혼이 승리뿐만 아니라 패배에서도 모든 것을 하느님의 손에서 내리는 것으로서 받아들일도록 나의 아버지의 신성한 뜻의 왕국을 마음속으로 이끈다.”

“이 **하나 된 사랑**이 마음에 가져오는 평화의 기준을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해하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기쁨의 깊이를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지상의 천국이다. **하나 된 사랑**에서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모든 것은 나와 함께 나누어 진다. 너희가 단독으로 직면하는 시련이나 권태, 곧 불안은 없다. **하나 된 사랑**에서 모든 것이 나에게 건네지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영혼이 **하나 된 사랑**의 성공에 달하기를 바란다. 내가 보는 바로는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하나 된 사랑**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의 영성에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2008년 3월 17일**에 주어진 메시지에서 아버지 하느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 된 사랑**에 대해서 세상에 말하려고 왔다. 이것은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의 다섯째와 여섯째 심방에 머무르는 영혼들과 나 사이에 함께 누리는 사랑이다. **하나 된 사랑**은 제 힘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내 성심과 인간의 마음이 일치할 때 언제나 존재한다. **하나 된 사랑**은 존재하는 사랑의 가장 높고 가장 순수한 형태다. 그것은 오직 우리 사이에서 은밀하게 나누어지는 새롭고 완전한 사랑을 형성하기 위한 우리의 성심과 마음의 액화 상태다.”

“오직 자유의지만이 이러한 일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것처럼, 오직 자유의지만이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다. 소수의 영혼만 이 고귀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을 달성한다. 그러나 티없는 마리아가 지상을 방문할 때마다 그녀의 목적은 영혼들을 하나 된 사랑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기꺼이 이 지시들을 세상에 알려라.”

이삼일 후인 **2008년 3월 20일**에 주어진 메시지에서 아버지 하느님께서 **하나 된 사랑**을 다음과 같이 더 한층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영혼들이 **하나 된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왔다. **하나 된 사랑**은 궁극적인 사랑이다. 그것은 새 예루살렘이다. 이 사랑은 나와 완전하게 일치된 소수의 사람들만이 체험할 수 있다. 이러한 영혼들은 모든 결점들이 정화되었고, 많은 시련들을 통해서 덕행이 완벽하게 된다. 이 영혼들은 성화를 원한다. 이러한 영혼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그들 위에 모든 은총을 채운다.”

“덕행에 속달하기를 갈망하여라. 내가 너희를 더 크게 활동시킬 것이다.”

아버지 하느님께서 **2008년 3월 17일**에 주신 그분의 메시지를 마치시고 심장 모양의 불꽃이 한 줄기 (획 불기)의 연기를 남기고 사라졌을 때, 모린은 곧이어 아래와 같은 도표의 한 환시를 받으셨습니다. 이 도표는 거룩한 사랑에서 신성한 사랑으로, 그리고 나서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을 통해서 **하나 된 사랑**에 이르는 과정에서 영혼의 진행을 지적합니다.



이 도표로 예수님께서 영혼이 **하나 된 사랑** (가장 깊은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로 표현되는 즉, 넷째, 다섯째, 특별히 여섯째 심방들인)의 완벽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로 진전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몇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8년 3월 20일**에 아버지 하느님의 메시지와 같은 날에 개별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영혼이 완벽한 **하나 된 사랑**의 달성에서 거룩함과 성화의 여정을 따라 어떻게 진척하는지에 대한 이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각 영혼을 다른 모든 사랑보다 뛰어난 사랑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살펴보아라. 그분께서는 영혼들을 당신과 하나 되게 즉, 당신의 신성하신 뜻에 잠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 된 사랑**으로 부르고 계신다. 이것은 모든 일·문제에서 그리고 매 현 순간에 자유의지의 내맡김을 요구한다. 이보다 더 위대한 요청, 곧 더 높고 더 고귀한 열망은 없다.”

“**하나 된 사랑**은 오직 어린이같은 철부지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 너희가 나에게 혹은 내 아버지에게 내맡기는 무엇이든 우리를 즐겁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아무것도, 어떠한 사랑의 희생도 가치 없는 것은 없다. 사람의 눈에 존경받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마라. 나에게 간청하고 영원하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만을 기뻐하여라.”

“만약 내 형제자매들이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 철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다면, 그들은 단 한 가지 즉, 숨겨짐을 열망할 것이다. 인정 받는 것, 세상의 눈에 중요한 것, 권력이나 지배력에 대한 유혹이 없어질 것이다. 교회의 전체 부문이 새로워질 것이다. 양심이 이기심에 대해 조명을 받을 것이며 자존심이 더 이상 진리의 빛을 흐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의 매력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유혹들이 너무 강하다. 이 선교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 번에 한 영혼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철부지로 계속 나아가게 하여라.”

예수님께서 **하나 된 사랑**인 완덕의 상태에 이르려는 우리의 노력에서 격려를 주십니다. 그분께서 겪으셨던 지극히 어려운 고통 중에도 매 현 순간마다 하느님의 뜻에 잠기셨던 모험화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와 같이 **2008년 3월 21일, 주님 수난 성 금요일**에 주신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수난의 시간 동안에 나는 맨 먼저 내 성심에 내 아버지의 흠승하을 신성한 뜻에 대한 나의 사랑을 간직하였다. 이것은 **하나 된 사랑**의 기초이다. 영혼이 나를 앞으로써 내 아버지를 알지 않는다면, 그는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2008년 3월 24일** 월요일 밤 성 미카엘 대천사의 진리의 방패 기도모임에서 예수님께서 **3월 17일**에 제공하셨던

도표를 참조 사항으로 붙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영혼이 완벽한 **하나 된 사랑**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각 영혼을 **하나 된 사랑**으로 이끌기 원한다. 우선 너희는 내 어머니의 성심으로 들어가고 그분 성심의 불꽃을 통해 너희의 가장 큰 죄와 잘못들을 정화해야 한다.”

“뒤이어 일어나는 결점 없는 **심방들**을 통하여 너희의 양심은 개인의 성화에 더 깊이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고쳐야 하는 진로에 관한 조명을 받을 것이다. **넷째와 다섯째 그리고 여섯째 심방**에서 **하나 된 사랑**에 도달하는 영혼들은 이 모든 것을 견디어 내는 영혼들이다.”

**2008년 3월 25일, 주님 탄생 예고 축일**에 예수님께서 **하나 된 사랑**이 무엇을 수반하고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달성하는지를 설명하시면서 아버지 하느님을 대신하여 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 된 사랑의 아버지**의 칭호 아래 알려지시는 것을 원하시고 의도하시는지 내 아버지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왔다. 아버지께서는 이 칭호 아래, 그리고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을 통하여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과 화해하기를 원하신다. 오 그분께서 얼마나 인류와의 이 일치를 갈망하시는지! 그분께서 얼마나 영혼들이 사랑 안에 일치하기를 열망하시는지!”

“이 영적 여정은 성령의 빛을 통해 주어진 진리 그 자체다. 내가 내 수난과 죽음으로 너희를 위해 천국의 문을 열었던 것과 같이 내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영적 여정을 통하여 당신의 신성하신 뜻과 일치하는 문을 열어주신다. 알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을 찬송하라!’)”

그 다음 날인 **2008년 3월 26일,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영혼들이 아버지 하느님께서 ‘**하나 된 사랑의 아버지**’로서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이 새로운 칭호를 더 한층 이해하게 하도록 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토마스 성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 된 사랑**은 성부의 성심입니다. 이 칭호는 그분의 성격,

곧 그분의 기질, 그분 현존의 본질을 묘사합니다.”

“둘째, 부성의 역할에서 성부께서는 **하나 된 사랑**을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베푸십니다. 그분께서는 이 역할에서 각 심방을 통해 이 **하나 된 사랑**의 예기·기대를 제공하십니다. 영혼이 심방들을 통해 깊이 여행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는 **하나 된 사랑**의 목표로 그리고 더 크게 **하나 된 사랑**의 예기에 다가갑니다.”

그 같은 날 늦게 속보로서 토마스 성인께서 아버지 하느님의 칭호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주시면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 된 사랑의 아버지**로서, 아버지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성심 안에 세상의 마음의 회개를 위해 아버지로서의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이 칭호 아래 모든 사람을 당신의 신성한 뜻으로 꾸준히 부르고 계십니다. 이 칭호 자체가 그분의 신성한 뜻입니다. 그분의 성심이 **하나 된 사랑**의 그릇입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그 사랑을,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는 은총과 함께 지상의 모든 곳에 베풀고 계십니다.”

토마스 성인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모든 인류를 그분의 **성부 성심(하나 된 사랑)**으로 부르심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한 사랑과 신성한 자비와의 관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된 사랑의 아버지’** 칭호에 대한 설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와 신성한 사랑과 신성한 자비와의 관계를 **2008년 3월 30일**에 하나 되신 성심의 별판 성지에서 대중을 위한 그분의 발현 동안에 주신 **하느님의 자비심 주일** 메시지에서 세상에 설명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사랑의 유대가 당신의 성심과 모든 인류의 마음 사이에 확립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이 메시지들과, 여기에서 주어진 모든 은총과,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을 통한 여정의 목적이다. 이 사랑의 유대는 인간의 마음이 내 신성한 자비의 바다에 던져지기까지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 영혼은 자기 자신의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면서 자기 인식에 그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

“영혼은 신성한 사랑의 절정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선 내 자비를 열심히 찾아야 한다. 내 자비가 신성한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첫째 심방, 즉 거룩한 사랑인 내 어머니의 성심 안에서 영혼은 그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자비에 의지하는 은총을 받는다. 그리하여 영혼은 신성한 자비를 통해 그 다음의 심방들을 지나서 인도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신성한 사랑과 신성한 자비는 **하나 된 사랑** 안에서 합친다. 사랑과 자비는 둘 다 창조 그 자체를 반대하는 이 세대에 의해 몹시 시련을 겪는다. 하느님의 신성한 뜻이 거부 받을 때마다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한다. 기도가 진심으로 천국에 올려지거나, 천국으로부터의 메시지가 받아들여지거나, 천국으로부터 발현이 일어날 때마다 죄의 부정적인 힘이 반대하고 있다.”

“진리에 대한 인류의 합리화는 나를 매우 불쾌하게 한다. 인류는 죄를 선한 것, 심지어는 올바른 행위로 합리화한다. 이것은 이기심에 헌신적인 세대에 의해 자유로이 받아들여지는 사탄의 거짓에 지나지 않는다.” ■

(제22편에서 계속)

## 복되신 어머니의 생신 축하 - 2017년 8월 5일

성모님께서 망토에 반짝이는 불빛과 온통 흰색 옷을 입시고 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제가 (모린) 성모님께 생신을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모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은 아무런 상관도 없다. 내세에는 시간이 없고 영원만이 있을뿐이다. 나는 이 날을 너와 함께, 그리고 대단한 믿음과

신심을 가지고 여기에 오는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다. 나의 기쁨은 은총을 필요로 하는 곳에 즉, 마음속과 상황 속에 그리고 인간 존재의 모든 측면에 은총을 미치게 하는 것이다.”

“오늘 나는 나와 함께 경축하기 위해 여기에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오고 싶었지만 어떤 이유에서라도 올 수 없었던 사람들도 또한 축복을 내린다. 나의 으뜸으로 정선된 축복들이 오늘 이 성지와 너희 마음들속에 함께 한다.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나의 생일 선물이다.” ■

